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오리엔탈정공(014940)

자본재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이학봉 대리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51-667-57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탈정공(014940)

40년 업력의 선박용 조선기자재 전문기업

기업정보(2020/12/10 기준)

대표자	박세철
설립일자	1980년 07월 19일
상장일자	2001년 12월 26일
기업규모	보호대상중견기업
업종분류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주요제품	Crane, Deck House, Funnel, Engine Room Casing 등

시세정보(2020/12/22 기준)

현재가(원)	2,37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1,080
발행주식수(주)	45,573,661
52주 최고가(원)	3,175
52주 최저가(원)	460
외국인지분율	0.60%
주요주주	오리엔탈홀딩스 유한회사

■ 창립 40주년의 선박용 조선기자재 전문기업

(주)오리엔탈정공은 1980년 7월 설립되어 2020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박용 기계품(Crane, Davit 등)과 선박용 거주구(Deck House), 연돌(Funnel), 엔진룸 덮개(Engine Room Casing) 등 대형 상부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의 품질과 원활한 사후관리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대형 조선소에 우수협력기업으로 지정되어 거래관계 지속하고 있다.

■ 대용량 및 고사양 선박용 크레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요구되는 대용량 고사양의 크레인 개발은 물론 더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Offshore Crane & Winch 제품군의 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LNG FSRU용 Offshore Knuckle Boom Crane을 개발 및 국산화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극저온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Jib Crane도 개발하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적용되는 기계품은 향후 동사의 미래 성장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조선소 수주 증가에 따른 매출 실적 개선세 기대

2020년 1~10월 누적 수주량에서 한국은 695만 CGT를 기록해 중국 611만 CGT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주춤하던 세계 선주들이 다시 발주에 나서고,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예고한 환경규제 시행에 따른 신규 물량 발주가 진행되면서 국내 대형 조선소로부터의 수주물량 회복되고 있어 실적 턴어라운드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1,010	-44.80	20	1.96	-11	-1.07	-9.38	-0.79	1,003.54	-27	286	-36.77	3.42
2018	775	-23.28	-15	-1.88	-31	-3.98	-25.39	-2.36	948.70	-73	278	-9.76	2.55
2019	1,301	67.93	53	4.10	35	2.70	15.92	2.43	397.94	77	690	10.39	1.16

기업경쟁력

조선해양 분야 전문기업

- 40년 업력의 조선기자재 전문기업
- 종속회사 (주)오리엔탈마린텍(선박용 구조물 제조)

기술연구

- 연구개발팀, 기계설계팀, 전장설계팀, 설계혁신팀 운영
- 기술력 확보를 위해 매년 연구개발비 지속적 투자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핵심기술

- 특수 목적용 크레인 제작 기술
- LNG FSRU용 Offshore Knuckle Boom Crane 개발 및 국산화(국내 최초)
- 설계기술 및 구조해석 기술 확보
 - 전문 설계 검증 시스템을 통해 설계와 해석의 일원화
- 다수의 선급인증 확보(22개)
- 조선기자재 관련 특허권 8건 보유

주요 제품 및 매출 비중

■ Provision Cr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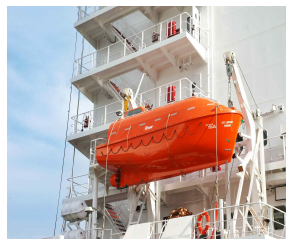
■ Deck Machinery



■ Deck House



■ Life Boat Davit



제품 별 매출 비중(2020년 3분기)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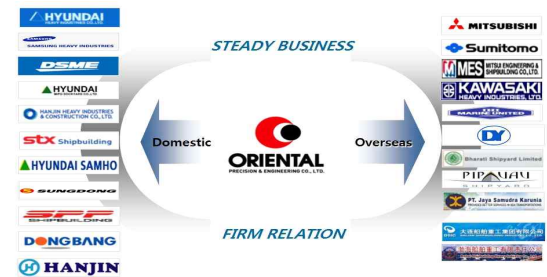
항목		매출액	비중(%)
기계품	Lifting Appliances	51,202	39.5
	Life Saving Appliances	1,265	1.0
구조물	Deck House 외	76,414	59.1
	기타	511	0.4
합계		129,392	100.00

시장경쟁력

오리엔탈정공의 경쟁력

- ISO 9001 및 API Q1 등 품질경영시스템 제도화
-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MES 시스템 구축
- 국내외 대형 조선소와 거래관계 지속

주요 고객사



시장 현황

- 한국 2020년 1~10월 누적 선박 수주량 1위 탈환
- 스마트·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수요 급증
-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예고한 환경규제 시행에 따른 세계 선주사 신규 물량 발주 예상
- 조선소 및 선박부품 제조기업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최근 변동사항

신제품 개발, 인증 및 공로패 수상

- 신제품 개발
 - Knuckle Jib Crane 개발
 - 극저온 작동 Jib Crane 개발
- 설계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Autodesk Vault Pro 도입
- 2020년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
- 대형 조선소 우수협력업체 선정
 - 현대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I. 기업현황

선박용 크레인 및 구조물 전문기업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조선해양 기계품, 구조물 제조 전문기업으로 사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관계사별로 특성화 및 전문화하여 선박용 기계품 제작, 대형 상부구조물 제작, 해양플랜트 특수 지원선 건조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 개요

(주)오리엔탈정공(이하 ‘동사’)은 1980년 7월 조선기자재 제조 등의 목적으로 (주)오리엔탈 휘팅으로 설립되어 1990년 3월 현 상호로 변경하고 2001년 12월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2014년 11월 현 박세철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사업 영위 중인, 2019년 12월 말 기준 총자산 65,089백만 원, 자기자본 34,105백만 원(납입자본금 22,787백만 원) 규모의 보호대상 중견기업으로 분석기준일 현재 상시종업원 101명의 임직원이 근무 중에 있으며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림 1] 창립 40주년 기념식



본사



창립 40주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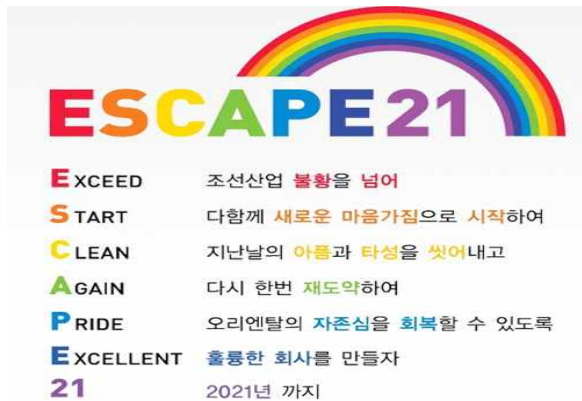
*출처: 동사 인터넷 홈페이지

■ 2021년 VISION

2020년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해로 지정하고 2021년까지 성장을 위한 ‘ESCAPE21’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 일환으로 부사장을 현대중공업(주)의 임원 출신으로 교체하고 종속회사의 대표이사 역시 삼성중공업(주) 임원으로 교체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개편을 단행함으로써 국내 메이저 조선소에 대한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로 최근 침체한 조선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진행 중이다.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공정관리를 위해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구축하여 활용 중이고 각종 안전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무사고·무재해 작업장 만들기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

[그림 2] 2021년 동사의 VISION



*출처: 동사

■ 종속회사 등 현황

종속회사로는 (주)오리엔탈마린텍(지분율 100%)이 있고 2019년 1/4분기 중 연태동방정공선박배투 유한공사는 50.1%를 외부투자자에게 매각하여 현재 4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연결재무제표에는 제외되었다. 한편 동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 등이 출자한 구조조정 전문인 연합자산관리(주)이다.

[표 1] 종속회사

상호	설립일	위치	주요사업	지배관계
주식회사 오리엔탈마린텍	2015.07.0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선박용 구조물, 해양플랜트 특수 지원선 건조 등	지분율 100%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그림 3] 주요 사업장



동사(부산)



(주)오리엔탈마린텍(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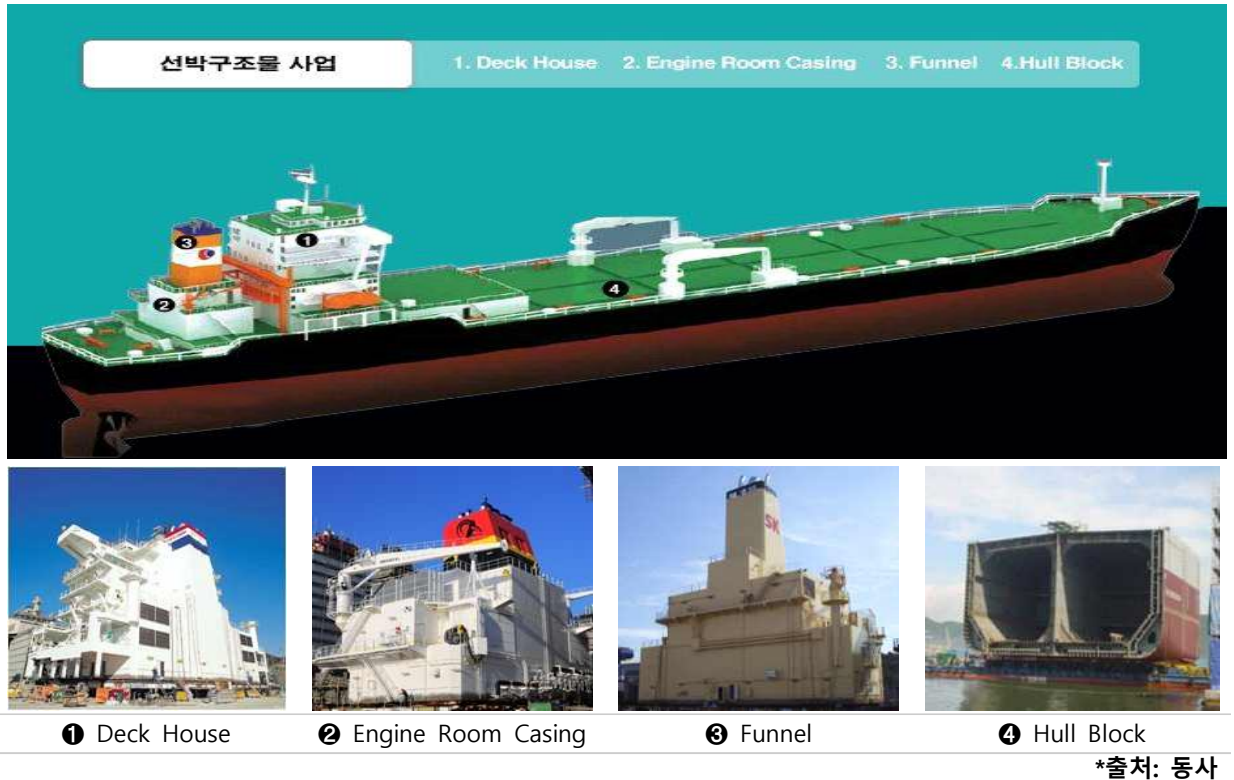
*출처: 동사

■ 생산 제품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은 선박에 설치되어 각종 물품의 양하역에 사용되는 Marine Crane에서부터 해양플랜트에 설치되어 해상작업을 지원하는 Offshore Crane까지 다양한 Lifting Appliances 제품군과 선박용 양모장치 Deck Machinery 및 선박용 구멍장치 Life

Saving Appliances(Life Boat Davit & Winch / Rescue Boat Davit & Winch) 등이 있다.

[그림 4] 선박 기계품 사업



■ 판매전략

해운사, 선주사 및 조선소에서 발주한 개별 프로젝트를 주문제작방식을 통해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고 적정 수주량 확보를 위해 품질 경쟁력, 원가 경쟁력 및 이미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중이다. 대표적인 국내 거래처로는 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등이 있고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최적화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사보다 우수한 제품을 적기에 조선소에 공급함으로써 판매처와의 신뢰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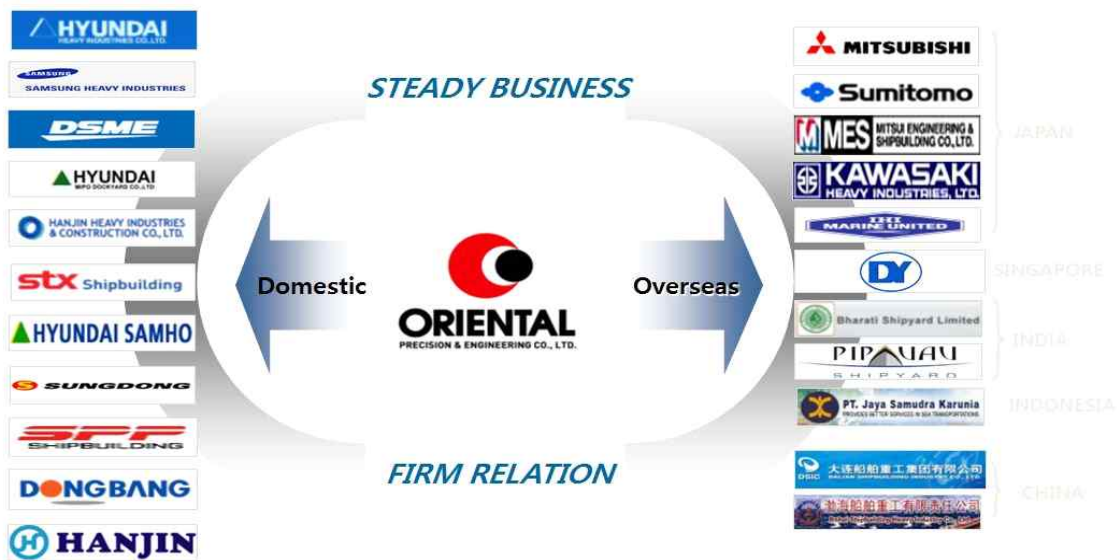
[표 2] 수주상황

단위: 백만 원

부문	품목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금액	금액	금액
기계품	Lifting Appliances	129,485	51,202	78,283
	Life Saving Appliances	1,505	1,265	240
구조물	Deck House E/R Casing & Funnel	111,032	76,414	34,618
	기타	511	511	-
합계		242,533	129,392	113,141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그림 5] 국내외 거래처



*출처: 동사

Ⅱ. 시장 동향

2019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감소하였으나, 환경규제 효과로 2020년 발주량 증가와 국내 수주량 개선 기대

2019년 신조선 시장은 환경규제를 앞둔 선주들의 관망세 확산, 미중 무역분쟁 영향 등으로 인해 해운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2019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줄었으나,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예고한 환경규제 시행에 따른 신규 물량 발주가 예상되어 한국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한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량 증가가 예상된다.

■ 조선산업의 특징

조선산업은 종합 조립 산업으로 조선사를 중심으로 블록업체, 기자재업체, 수리업체로 분업화되어 있다. 국내 조선사는 하나의 선박을 여러 부문의 블록(단위)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제작하고 이 블록들을 조립하여 완성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초기 설비시설에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조립 공정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높은 기술 수준과 적정규모의 고급 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기간에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자본, 기술, 노동 집약적 산업 특징을 가진다. 또한, 산업 특성상 전방산업인 해운업 현황의 시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후방산업인 철강, 기계산업 등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종합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다.

[표 3] 조선산업의 연관구조

후방산업	조선산업	전방산업
기계산업, 철강산업, 전기산업, 화학공업, 비철금속산업	상선, 특수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설계 및 건조	해운산업, 수산업, 방위산업, 레저산업, 에너지개발

*출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년

조선기자재 산업의 성장성은 해운산업, 조선산업 등의 전방산업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방산업인 해운산업, 조선산업은 경기 선행지표인 세계 경제 성장률, 물동량, 유가변동, 기술혁신(세일가스)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기술력을 앞세워 LNG, FPSO, LPG,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 활동을 하고 있다. 조선기자재 산업도 이러한 조선산업의 활발한 성장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감 여부는 산업의 성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의 건조와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와 자재류를 일컫는 조선기자재는 조선업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조사방법이나 기자재 분류 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자재는 대략 400~700여 종으로 선박 건조 원가의 55~65%의 비중을 차지하며 후판, 주강철, 페인트, 용접 재료 등 소재 형태를 제외한 조선기자재는 전체 선가의 25~35% 정도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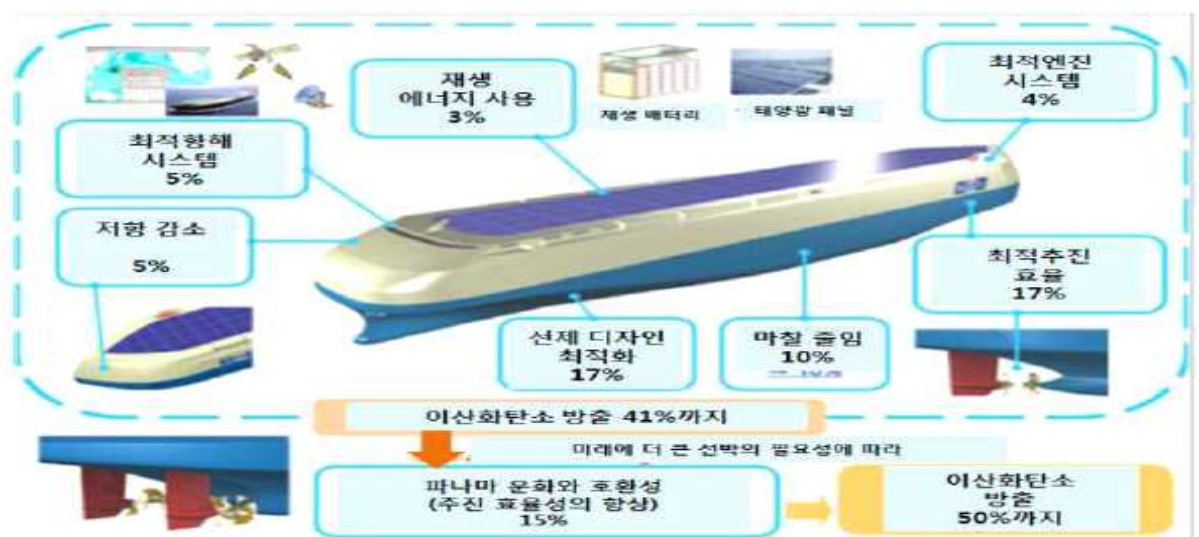
조선기자재는 선박의 건조 및 수리에 필요한 부분품을 말하며 업계에서는 크게 선체부, 기관부, 의장부 및 전기·전자부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 국내외 정책 동향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선박의 온실가스(GHG)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기인 대기 및 해양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국제규정 강제화를 본격화하고 있어 스마트·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조선시장을 이끄는 주력 선박은 IMO의 선박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강화로 주로 연료효율 증대, 친환경화, 안전 및 대형화의 시장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선박으로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6] 친환경 선박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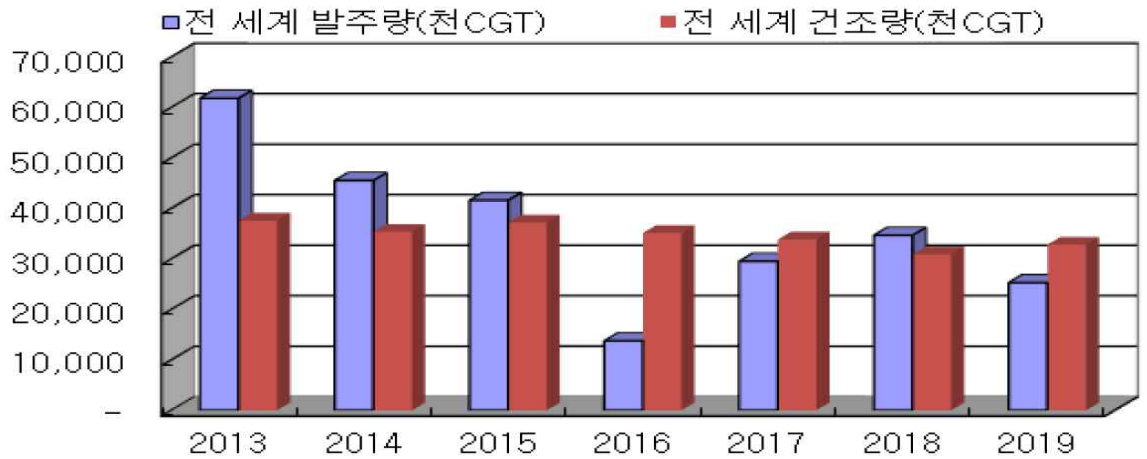
*출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년

IMO의 환경규제에 따라 CO₂, NO_x, SO_x 등에 대한 배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이러한 점증적 규제 강화는 글로벌 선박 시장구조를 전체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신조선 시장 동향

2019년 신조선 시장은 환경규제를 앞둔 선주들의 관망세 확산, 미중 무역분쟁 영향 등으로 인해 해운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전 세계 선박 발주는 2,529만 CGT(Compensated Gross Tonnage)로 전년 대비 27.0%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9년 세계 건조량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3,281만 CGT를 기록하여 2018년을 저점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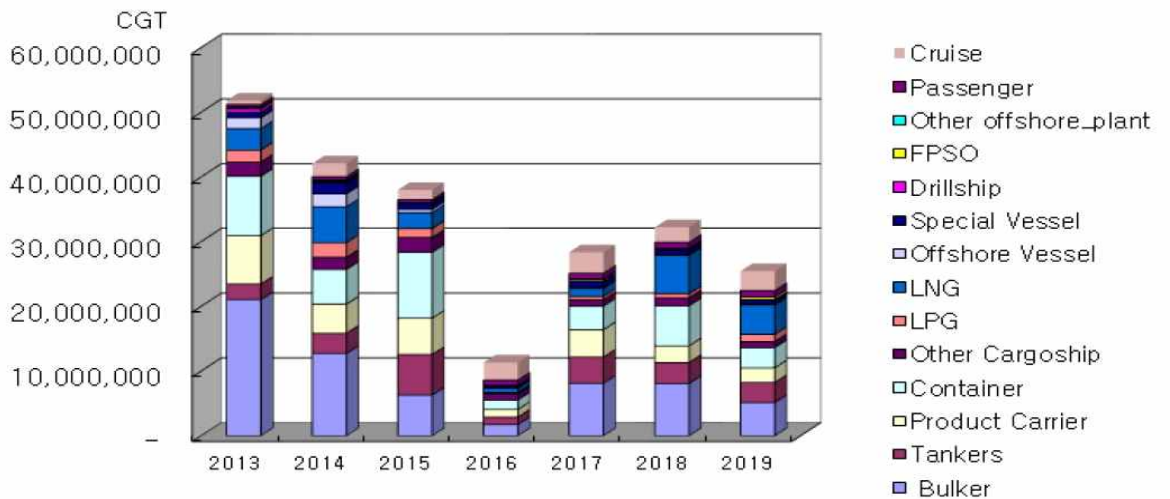
[그림 7] 세계 신조선 발주량 및 건조량 추이



*출처: Clarksons Research

선종별로는 2019년 LPG선, 크루즈선을 제외한 모든 선종의 발주가 감소하고 있는데 선종별 2019년 발주량(CGT 기준)은 벌크선 36.4%, 유조선 4.1%, 제품선 12.6%, 컨테이너선 49.4% 각각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9년 세계 건조량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3,281만 CGT를 기록하여 2018년을 저점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선종별 세계 신조선 발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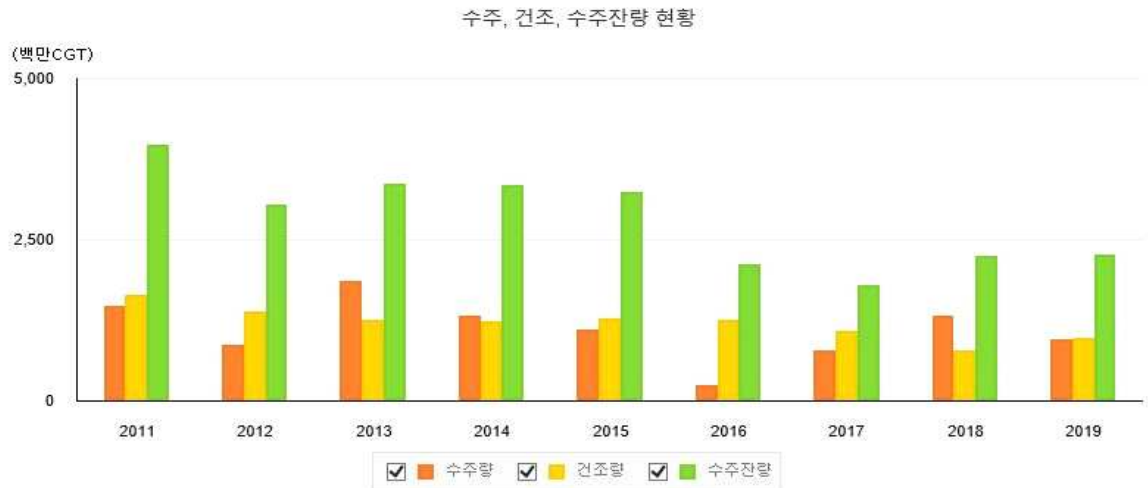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0년

■ 국내 신조선 시장 동향

조선산업의 산업 활동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로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등 3대 지표가 주로 활용된다. 수주량은 국내 조선소가 국내외로부터 수주한 물량을 톤수로 나타낸 지표이며, 건조량은 국내 조선소가 수주한 물량에 대하여 건조한 물량을 톤수로 나타낸 지표이고, 수주잔량은 국내 조선소가 수주한 물량을 건조하고 남은 물량을 톤수로 나타낸 지표이다. 그리고 CGT는 ‘실질적인 작업량의 크기’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선종/선형별, 공사량, 건조능력 산출, 수주, 수주잔량, 통계작성 등에 활용된다.

국내 2019년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4% 감소한 943만 CGT를 기록하였다. 선종별로 LPG선 수주를 제외한 모든 선종이 감소하였는데 선종별 감소율은 컨테이너선 43.1%, 유조선 14.3%, 제철운반선 43.1%이다. 한편, 세계 신조선 발주량 감소로 인하여 한국의 수주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수주 점유율은 전년 수준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그림 9] 국내 조선산업의 선박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현황(2011~2019년)



*출처: Clarksons Research, 'World Shipyard Mon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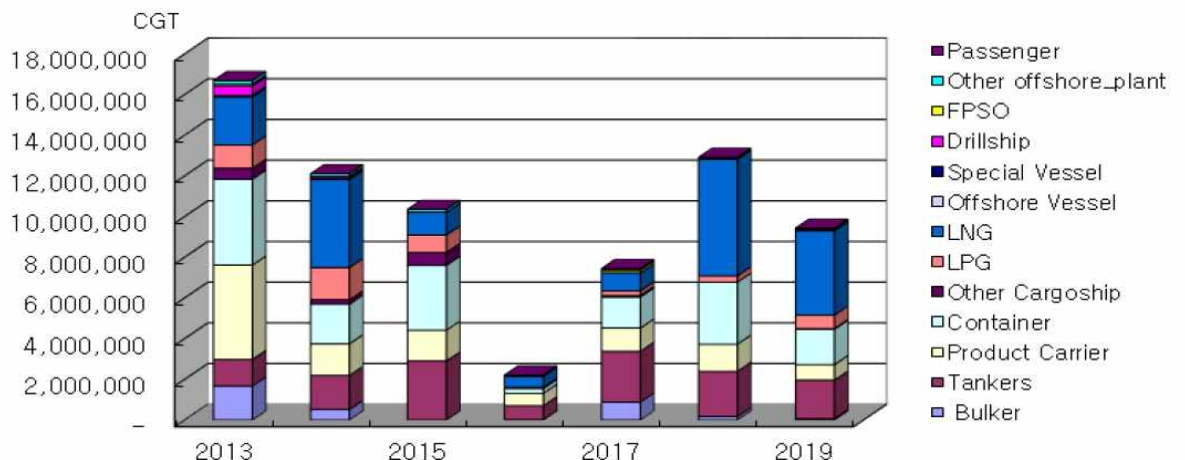
[표 4] 국내 조선산업의 선박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현황(2011~2019년)

단위: 백만 CGT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주량	1,458	860	1,844	1,309	1,099	222	761	1,308	943
건조량	1,628	1,358	1,250	1,218	1,269	1,236	1,057	772	951
수주잔량	3,959	3,033	3,362	3,323	3,228	2,094	1,768	2,238	2,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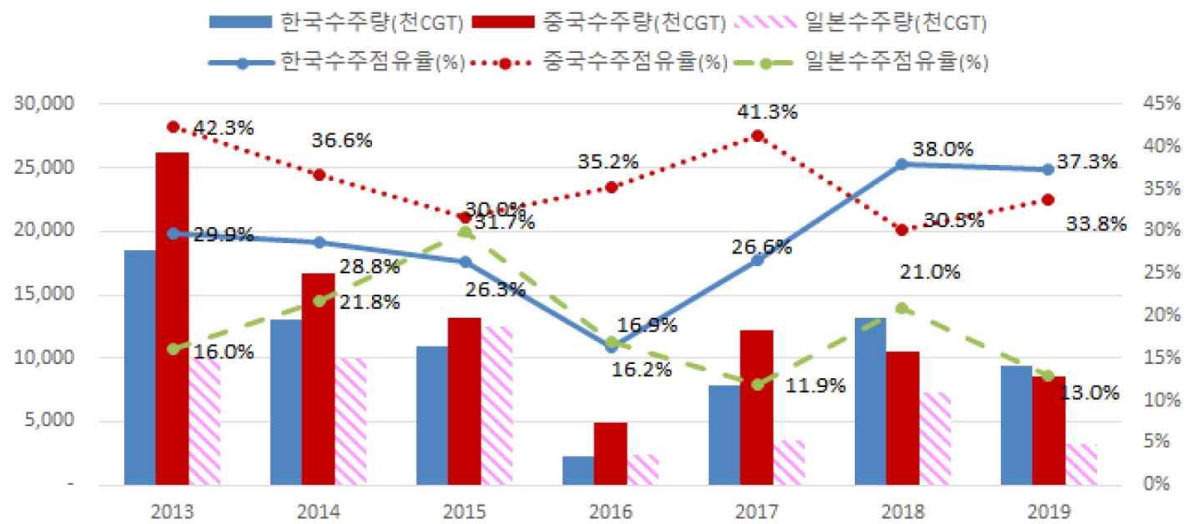
*출처: Clarksons Research, 'World Shipyard Monitor'

[그림 10] 한국 조선업 선종별 수주량 추이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20년

[그림 11] 한중일 3국의 수주량 및 점유율 추이



*출처: Clarksons Research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Clarksons Research’ 에 따르면 한국 조선은 2020년 10월 초 대형 원유운반선(VLCC)과 PC선(석유화학제품 운반선), LPG선(액화석유가스 운반선) 등을 앞세워 10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70%를 끌어 담으며 선박 수주 실적에서 2020년 상반기 1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을 제치고 2020년 7월, 8월, 9월, 10월 4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한, 1~10월 누적 수주량에서도 한국은 695만 CGT를 기록해 중국 611만 CGT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고 수주액 또한, 159억 7,000만 달러(중국: 136억 7,000만 달러)로 2020년 8월 이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주춤하던 세계 선주들이 다시 발주에 나서고, 2020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예고한 환경규제 시행에 따른 신규 물량 발주가 예상되어 한국 주력 선종인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 대한 국내 조선업계의 수주량 증가가 예상된다.

Ⅲ. 기술분석

대용량, 고사양의 고부가가치 선박 구조물 개발 진행

동사는 설계, 구조 해석, 용접, 금속 가공 및 조립 등에 대한 기술력과 기술연구 사업을 통해 선박용 기계제품, 선박용 상부구조물 제작 대표기업으로 성장하였고 LNG FSRU용 Offshore Knuckle Boom Crane을 국내 최초 개발하였으며 극저온 Jib Crane 또한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다.

■ 선박의 종류 및 건조기간

선박은 사용 목적에 따라 상선, 함정, 어선, 특수 작업선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상선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여 운임수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을 말하며, 이것을 다시 화물선, 화객선, 여객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은 일반 건축물보다 규모가 크고 공정 면에서도 복잡하며, 수많은 부재와 기자재를 조립하여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또 선박은 계획생산이 아닌 선주로부터 주문을 받아 건조하게 되는 주문생산 방식을 취한다. 선주는 발주 전에 건조할 선박의 종류와 크기, 항로와 속도, 국적 및 선급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정해놓고 여러 조선소에 납기와 가격을 의뢰하게 되며, 조선소는 자사의 생산능력과 수주잔량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양서, 납기 및 가격을 선주 측에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담에 응하게 된다. 선주와 조선소 간의 건조계약이 체결되면 조선소는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하게 되며 선박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설계 기간 7~8개월을 포함하여 1.5년 정도가 소요된다.

■ 조선 분야 기술

조선 분야는 각종 대형 선박과 중소형 선박의 건조 및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설계, 생산을 위한 지식 기반형 복합 엔지니어링 산업으로 해운, 항만과 관련한 전방산업뿐만 아니라 철강,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등 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종합 조립 산업이며 선박 건조과정에서 기술인력, 기능인력 등 각종 분야의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현재, 해양환경 보호 및 규제 대응,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선박기술, 최적의 에너지 효율로 자율 또는 무인 선박 운항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된 스마트 선박기술, 해양레저 선박 및 특수목적선 등 시장 진출 및 점유를 할 수 있는 중소형 조선소 경쟁력 제고 기술,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글로벌 기자재업체 육성기술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친환경 선박이란, 기존 선박보다 연료소비량이 적고 대기 및 해양 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말한다. 친환경 선박 핵심기술로는 선박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보호기자재 및 친환경 동력기술, 해양오염 물질 배출을 차단하는 해양환경보호 기자재 및 고효율 선체/선형 기술 등이 포함된다.

스마트 선박이란, 자율·무인 운항이 가능한 선박, 원격진단 및 관리가 이루어져 최적의 에너지

효율로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한 정보통신(ICT)기술이 적용된 선박을 의미한다. 스마트 선박 핵심기술로는 e-Navigation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선박 자율운항기술을 비롯해 원격관제기술, 항해 중 엔진을 비롯한 핵심 기자재에 대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모니터링 및 진단 기술 등과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에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건조비용 및 운항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도 포함한다.

[그림 12] 조선 분야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중소형 선박	친환경 조선 해양기자재
			

*출처: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18~2020년

■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최근 국내 조선산업은 드릴쉽(Drillship),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FLNG(Floating Liquefied Natural Gas), FSRU(Floating Storage Re-gasification Unit)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수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변화의 유동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외의 경쟁 업체들에 대한 원가 절감 및 품질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동사는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실제 경험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와 목적에 부합하는 선박용 Crane 장비류인 Deck crane, Offshore crane, Conventional cargo crane, Jib crane, Engine room crane, Monorail crane, Deck machinery, Life boat davit의 제품 개발, 생산설계 및 개선, 표준화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선박용 기계제품인 Lifting Appliances(Marine Crane), Deck Machinery, Engine Room Crane, Life Saving Appliances 등의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종속회사인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선박용 상부구조물인 Deck House, Engine Room Casing & Funnel 등을 생산하고 있다.

[표 5] 주요 제품

영업부문	주요 제품
기계품	① Lifting Appliances - Provision Crane, Hose Handling Crane Deck Crane, Monorail Hoist Crane, Offshore Crane ② Deck Machinery - High Pressure Monitor Driven, Self-Contained Hydraulic Power Unit ③ Engine Room Crane - Normal Head Type, Low Head Type, 2 Hook & 2 Trolley Type, Chain Hoist ④ Life Saving Appliances - Life Boat Davit & Winch, Rescue Davit & Winch, Free Fall Life Board Davit & Winch
구조물	⑤ Deck House ⑥ Engine Room Casing & F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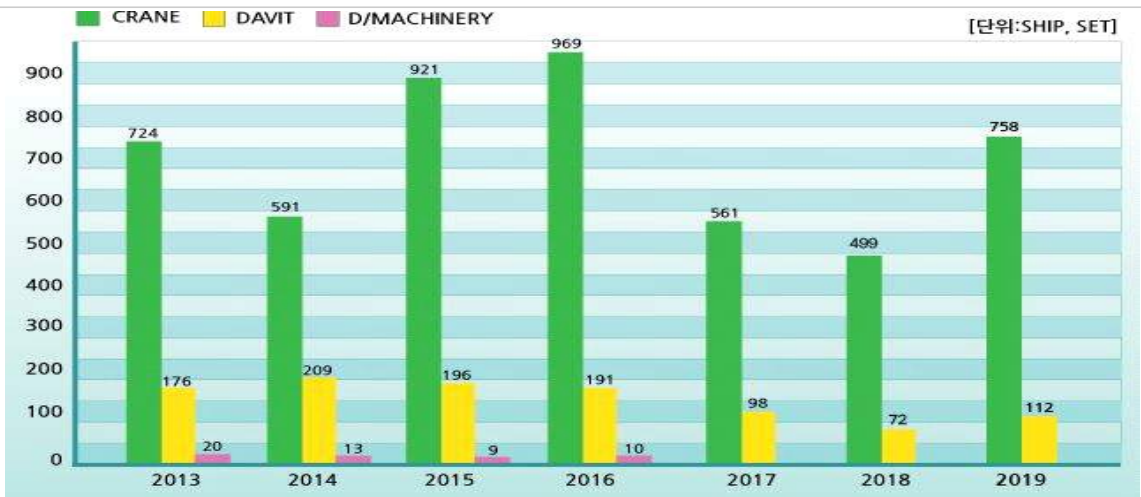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그림 13] 주요 제품



*출처: 동사

[그림 14] 생산실적



*출처: 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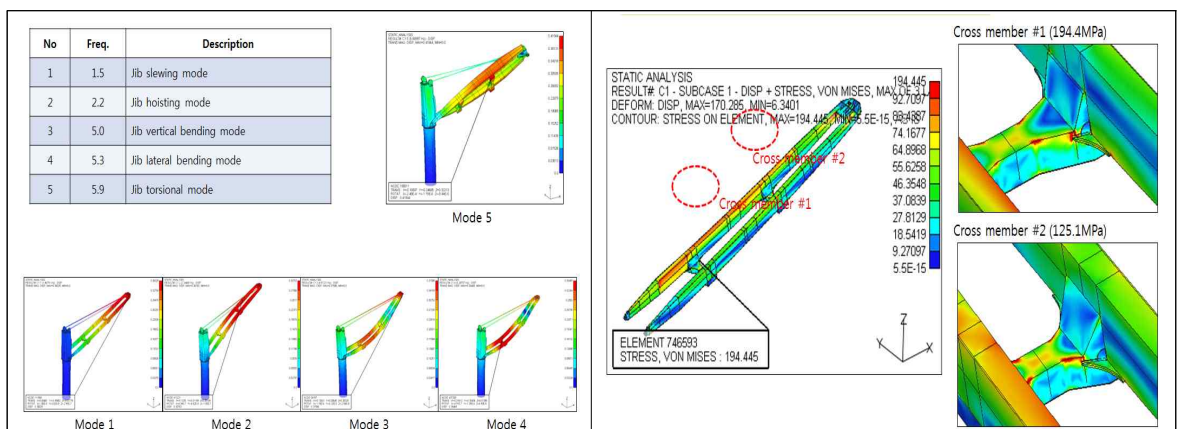
■ 설계기술 및 구조해석 기술

조선기자재 산업은 해상활동량의 수요 예측 변화, 각종 선박 관련 국제법규나 기준의 변경에 의한 새로운 선박의 수요 증감 등에 따라 전방산업인 조선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선박용 기계제품 및 상부구조물은 주문생산방식으로 제작되고 있어 고객 요구에 맞추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관과 용접 및 가공기술뿐만 아니라 기계, 유압, 전기 등의 설계 능력이 우수해야 하고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생산력을 높일 수 있어야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다. 또한, 30ton 이상의 대형 크레인 제작과 해양플랜트 사업에는 인적 구성과 물적 설비 및 기술적인 설계 능력이 필요한데 동사는 구조해석에 의한 최적화 설계와 풍하중, 너울 등을 감안한 상세 요소 설계기술을 바탕으로 원가절감, 제품 신뢰성 향상 등을 시현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구조물의 특성상 그 제작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각종 인허가 및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사업 수행을 위한 다양한 인증(ISO 9001, ISO 14001, ISO 45001, 선급인증 등)을 획득하여 조선기자재 생산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그림 15] 구조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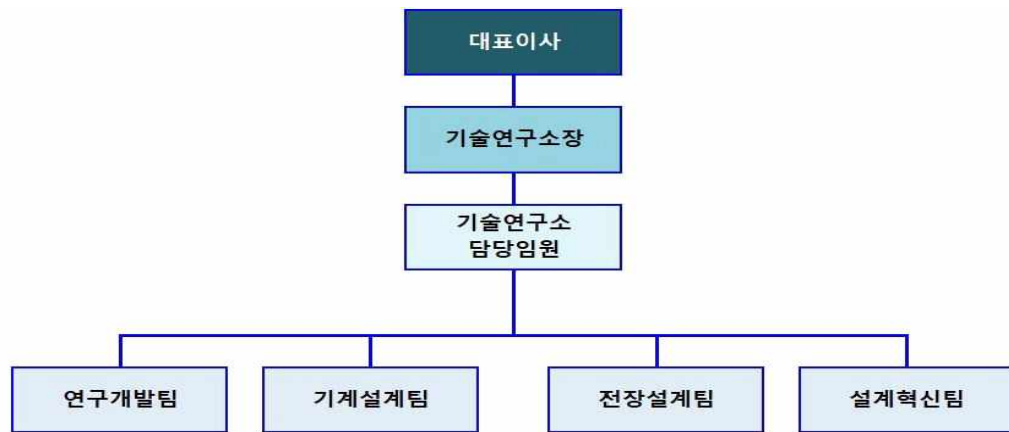


*출처: 동사

■ 연구개발 활동

기업부설연구소 내 연구개발팀, 기계설계팀, 전장설계팀, 설계혁신팀을 두고 있으며 전문 설계검증 시스템을 통해 설계와 해석을 일원화하여 제품의 품질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개발기술에 대해 8건의 특허권을 등록하여 주요 기술을 법적 보호조치를 하고 있다.

[그림 16] 기술연구소 조직도



*출처: 동사

[표 6] 연구개발 비용

단위: 백만 원

과목	2020년 3분기	2019년	2018년
연구개발비용	432	399	405
연구개발비/매출액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3%	0.3%	0.5%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표 7]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NO	지식재산권 내용	등록일자	등록번호
1	선박 기관실용 크레인 수리를 위한 비상 접근용 대차	2016-10-05	10-1665290
2	컨테이너선 혹은 자동차운반선 투 후크 투 트롤리 타입 기관실 크레인	2016-10-05	10-1665291
3	기관실 크레인	2016-10-05	10-1665292
4	봄의 기복각도에 따라서 후크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데크 크레인	2010-08-20	10-0978467
5	인원 이송 바스켓	2013-12-04	10-1340193
6	인원 이송 시스템 및 그 제동 성능 검사 방법	2013-11-29	10-1337721
7	인원 이송 시스템 및 그 제동 성능 검사 방법	2013-11-29	10-1337805
8	인원 이송 시스템 및 그 제동 성능 검사 방법	2013-11-29	10-1337725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특히, 최근 국내 최초로 LNG FSRU용 Offshore Knuckle Boom Crane을 개발 및 국산화하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 크레인은 Main Platform, Crane Boom Package 설계 기술이 적용되었고 고객 요구사항 및 선급 Rule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해상 환경에 적합하도록 Radius 및 Load monitoring System, 과온도 방지 장치, 권과 이탈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 장치, Fail Safety Device, 비상 정지 장치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개발 및 적용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Arctic LNG용 영하(-) 52℃ 극저온 작동 Jib Crane, LNG Barge용 영하(-) 40℃ 극저온 작동 Jib Crane은 극한의 온도에서도 크레인의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동 제품은 국내 최초로 개발되어 기존 해외 제품에 대한 대체가 기대된다.

[표 8] 최근년도 연구개발실적(2017~2020년)

년도	주요 연구과제
2017년	Offshore Knuckle Boom Crane(3Tx31M, LNG-FSRU)
	Engine Room Crane(2 Hook- 2 Trolley) 신규모델 개발(2x3.75T)
	Telescopic Crane(1Tx25M)
2018년	Offshore Knuckle Boom Crane(3Tx24M, LNG-FSRU)
	Two Cylinder Luffing Type Jib Crane 30Tx30.5M
2019년	대용량 Monorail Crane 개발(15T)
	대용량 Engine Room Crane 개발(15T)
	Slewing Two Speed Jib Crane 개발(20Tx26.8M)
2020년 (진행 중)	Knuckle Jib Crane 개발(2Tx30M)
	Arctic LNG용 Minus(-) 52℃ 극저온 작동 Jib Crane 개발
	LNG Barge용 Minus(-) 40℃ 극저온 작동 Jib Crane 개발 (8Tx20M, 10Tx30M, 15Tx20M, 15Tx34M)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IV. 재무분석

2019년도부터 성장 회복세 전환 및 수익성, 재무구조, 현금창출능력 개선 중

전방산업(조선업)의 경기침체 여파로 2016년도부터 실적 감소하였으나 2019년도부터 실적 회복 및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3개년 부채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기자본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무안정성 개선되고 있으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의 증가로 인해 현금창출능력도 개선되고 있다.

■ 2016년도부터 매출 감소, 2019년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및 수익성 대폭 개선

동사는 주문생산방식에 의해 선박용 기계제품(Lifting Appliances 외) 및 구조물제품(Deck House, Engine Room Casing Funnel 외), 선박용 구명장치(Life Boat Davit & Winch 외) 등을 주력 제작하여 고객사(해운사, 선주사, 조선소)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2016년도 182,955백만 원의 매출 실적 시현 후,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업의 경기 침체 지속에 따라 2018년도까지 큰 폭의 매출감소세 및 적자 지속되었다가 2019년도에 들어서면서 대용량 Crane류, Winch 제품류 및 구조물 수주량이 회복되고, 특히 Crane류 및 구조물 납품실적이 증가하면서 2019년 매출실적(130,107백만 원)이 전년(77,475백만 원) 대비 67.93%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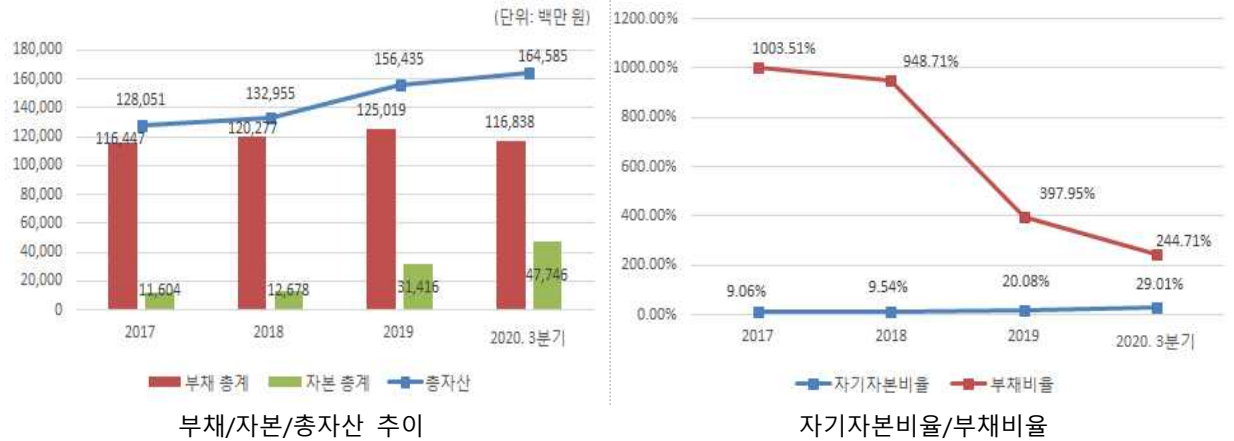
이에 따른 고정비부담 완화 효과와 합리적인 원가관리를 통해 2019년도 영업이익 5,338백만 원, 당기순이익 3,509백만 원(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 각각 4.10%, 2.70%) 시현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기계제품과 구조물제품의 고른 성장으로 인해 2020년 3분기 매출액(129,392백만 원)이 전년 동기(90,613백만 원) 대비 42.80% 증가하였다.

[그림 17]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2019년 연간 사업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그림 18] 동사 연간 및 3분기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2019년 연간 사업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2019년도부터 흑자전환 및 수익성 큰 폭 개선, 재무안정성 지속 개선 중

동사는 2016년도 182,955백만 원의 매출 실적 시현 후,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업의 경기 침체 지속에 따라 2018년도까지 큰 폭의 매출감소세 및 적자 지속되었다가 2019년 3분기 매출실적 (90,613백만 원)이 전년 동기(50,297백만 원) 대비 80.16%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되어 2019년 3분기 영업이익 911백만 원을 시현하며 흑자전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수익성 측면에서, 최근 3개년(2017년~2019년) 영업이익률이 1.96%, (-)1.87%, 4.10%로 변동성은 다소 확대되었으나 고부가가치 품목(대용량 Crane류, Winch 제품류 및 구조물) 수주량이 회복되고, 특히 Crane류 및 구조물 납품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고정비부담 완화 효과와 더불어 주요 원재료 가격 안정화, 합리적인 원가 관리 등을 통해 2019년도 영업이익 5,338백만 원, 당기순이익 3,509백만 원(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각각 4.10%, 2.70%) 시현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하였다.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2020년 3분기 부채비율은 2017년 1,003.51%, 2018년 948.71%, 2019년 397.95%, 2020년 3분기 말 244.71%이며, 최근 3개년 및 2020년 3분기 자기자본비율은 2017년 9.06%, 2018년 9.54%, 2019년 20.08%, 2020년 3분기 말 29.01%로, 거시적 관점에서 부채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기자본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재무안정성이 지속 개선되고 있다. 또한, 2020년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2.80% 증가하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익성 향상으로 인한 자본충실도(잉여금 누적) 제고 추세 및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상 연구개발활동 외에는 설비 신설 및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투자계획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적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재무구조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 동사 연간 수출/내수 비중 및 분야별 매출 분석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2019년 연간 사업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2020년 3분기 수출 비중 4.24% 및 구조물 사업부문 매출비중 59.1%

동사의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부문은 기계품 및 구조물 사업 부문으로 동사 매출의 99.61%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사업부문이 0.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내수 판매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동사의 수출비중은 2019년 3분기 5.26%에서 2020년 3분기 4.24%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수출금액 측면에서 보면 2019년 3분기 4,764백만 원에서 2020년 3분기 5,486백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5% 증가하였다. 수출액의 소폭 증가는 동사의 글로벌 시장 판매 전략(가와사키, JMU 등)을 통해 선박용 상부구조물인 Deck House와 선박용 기계제품인 Lifting Appliances 등의 수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수익성 취약하나 2020년 상반기 매출실적 큰 폭 증가하며 개선 전망

2019년도부터 본격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기 시작되었고, 2020년도에 들어서면서 기계품류와 구조물제품의 고른 성장으로 인해 2020년 3분기 매출액(129,392백만 원)이 전년 동기(90,613백만 원)대비 42.80% 증가하면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18,357백만 원)과 당기순이익(15,762백만 원)도 전년 동기(영업이익 911백만 원, 당기순손실 17백만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업의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다.

동사는 대용량, 고사양 Crane류 및 Offshore Crane & Winch 제품군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해운사, 선주사 및 조선소에서 발주한 개별 프로젝트 수주량이 회복되고 있다. 또한, 동사가 국내외 주요 조선소로부터 적정 수주량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경쟁력, 원가경쟁력 및 이미지경쟁력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ERP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적기에 우수한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하는 데 최적화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영업에 임하고 있으며 국내 중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가와사키, JMU 등 굴지의 조선소와 거래하며 거래선 다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사의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며 현재의 실적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점진적으로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동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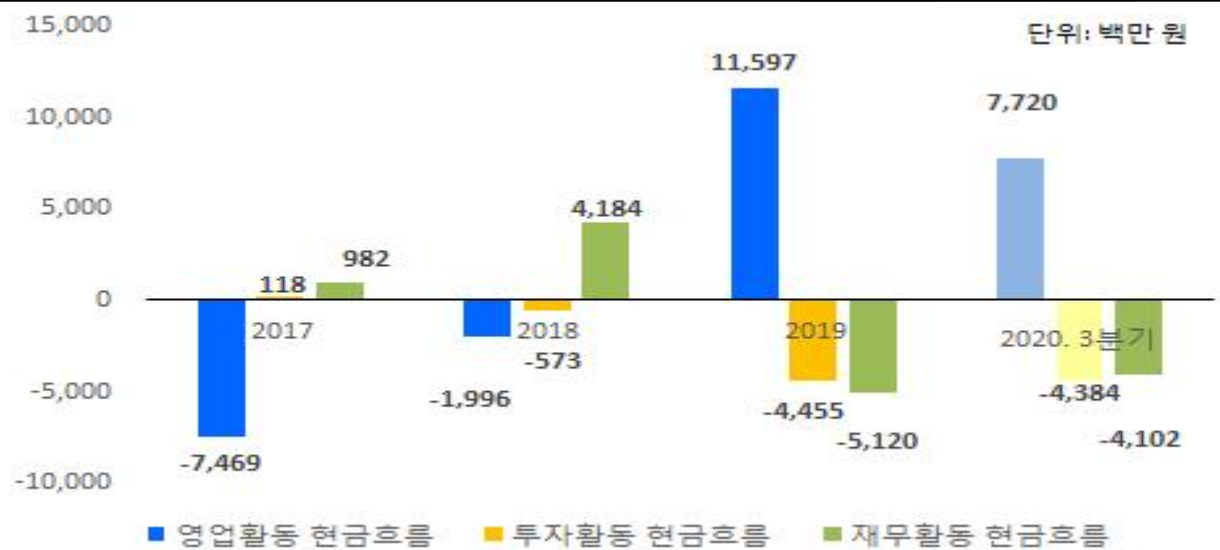
■ 영업활동현금흐름 증가하며 현금유동성 점진적으로 개선 중

2019년 동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11,597백만 원)은 영업이익(5,338백만 원)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2019년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큰 폭 증가와 더

불어 전년 대비 순운전자본의 감소 및 법인세 환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동사 영업활동 현금흐름 규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2019년 말 현금성 자산(12,594백만 원)이 전년 말(10,654백만 원) 대비 1,940백만 원 증가하였고,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유무형자산의 취득, 금융자산 취득,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취득 등 투자활동을 위한 현금유출에 충당하고 있으며(투자활동 현금흐름 -4,455백만 원),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재무활동을 보이고 있다(재무활동 현금흐름 -5,120백만 원).

한편, 2020년 3분기 말 투자활동현금흐름(-4,384백만 원/ 유동금융자산 취득 외)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4,102백만 원/ 단기차입금 상환 외)으로 인해 2020년 3분기 말 현금성 자산(11,831백만 원)이 2019년 말 대비 763백만 원 감소하였으나 영업활동현금흐름(7,720백만 원)이 전년 동기(6,301백만 원) 대비 증가하여 현금창출능력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0] 동사 현금흐름의 변화



*출처: 동사 2020년 3분기 사업보고서, 2019년 연간 사업보고서,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기술개발활동 지속, 국내 대형 조선소와의 공고한 거래관계 지속

동사는 생산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아 주요 고객인 국내 대형 조선소의 우수협력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신규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 진행 중이다.

■ 극저온 작동 Jib Crane 개발

동사는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요구되는 대용량·고사양 크레인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더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Offshore crane & winch 등의 제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Offshore lattice boom crane, offshore box boom crane, 극저온(-45℃) 작동 jib crane류 등을 개발해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 진행 중이다.

동사는 삼성중공업(주) 및 러시아 ZVEZDA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Arctic LNG Project의 쇄빙 LNG 운반선 5척에 공급되는 지브 크레인(JIB CRANE)에 대해 선주 승인과 함께 삼성중공업

[그림 21] 극저온 작동 Jib Crane



*출처: 동사

(주)에서 수주에 성공하였다. 첫 호선의 납기는 2021년 7월이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작 및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쇄빙선은 영하 52℃ 이하의 극한 상황에서 두께 2m가 넘는 얼음층을 깨고 나아가야 하므로 방한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동사는 러시아선급(RS) 승인 하에 영하 52℃의 YAMAL 주변 지역 극저온 외기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극저온 부품/자재와 윈터리제이션 히팅 시스템(Winterization heating System)이 적용된 영하 52℃ 극저온 작동 Jib Crane 개발에 대한 연구도 지속하고 있다.

Arctic LNG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 반도에 있는 가스전으로 러시아는 해당 가스전에서 2025년까지 연간 1,980만 톤 규모의 LNG를 생산하기 위해 관련 선박 발주를 늘리고 있다. 빙하를 깨고 운행해야 하는 높은 건조 기술력이 요구되는 까닭에 국내 조선업체가 수주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조선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동사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설계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Autodesk Vault Pro 도입

2020년 10월 시작하여 2021년 4월까지 스마트 팩토리 국가사업 연계를 통해 설계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Autodesk Vault Pro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도면의 표준 형식과 구현을 통해 BOM(부품목록) 등 도면 내의 정보를 자동 추출해 'ERP', 'MES'의 프로그램

과 연계하여 자동 발주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정 전산화, 원가관리, 생산계획 및 관리, 자재계획 등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9] 정성적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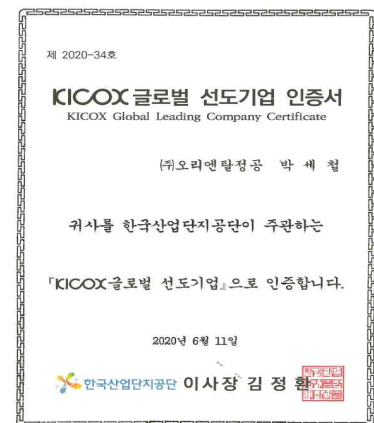
기술연구소	현장 및 기타 부서
① 설계 품질 향상 → 도면 무결정 확보 ② 설계 → 배포 → 발주 표준 시스템 완성 ③ 고객 만족도 향상 ④ 단순 반복 작업 감소, 업무 만족도 향상 ⑤ 설계 업무 집중도 향상 ⑥ 같은 인원으로 추가 프로젝트 가능 ⑦ 도면 배포 시간 및 오류 최소화 ⑧ 발주 업무 간소화 및 오류 최소화 ⑨ 다중 백업으로 지적 자산 보호	① 도면 BOM 정보 자동 수집으로 구매, 생산, 재무까지 활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마련 ② 현장 무도면화 → Tablet 으로 최신 도면 확인 가능 ③ 관련 부서에서 항상 최신 도면 열람 ④ 협력사, 출장자, Web으로도 항상 최신 도면 공유 가능

*출처: 동사

■ 인증 및 공로패 수상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맞는 2014년부터 산업단지 입주기업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큰 우수기업을 찾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지원, 동반성장 협력 대출 지원, 스마트 팩토리 확산·고도화 지원, 해외 기술교류단 추진, 4차 산업혁명 기업혁신 CEO 교육과정 운영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맞춤형 성장 지원과 다양한 금융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20년 6월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38개사를 신규로 선정하였는데 동사는 선박용 크레인 등 선박 구성품 제조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0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22] 글로벌 선도기업 인증서



*출처: 동사

또한, 주요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주)에서 우수한 제품의 공급과 원활한 사후관리를 인정받아 2020년 1월 14일, 2019년 기자재1분과 우수협력회사로 선정되었고 2020년 1월 17일 현대중공업(주)로부터 우수협력회사 공로패를 수상하여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림 23] 협력업체 지정



*출처: 동사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1년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24]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 금융(2020년 12월 10일)